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락랑위생용품공장과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락랑 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12월7일공장에 새로 건설한 위생용품분공장을 돌아보던 날이 되새겨진다고 하시면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위생용품들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질 좋은 위생용품들을 공급해줄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몸소 여러가지 위생용품본들도 보내주시고 위생용품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높은 생산성과로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품진렬실, 위생용품생산직장, 포장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

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위생용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좋은 위생용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장군님께서 것처럼 심려하시던 문제를 덜어드리는 공장,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있는 애국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락랑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위생

용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특별히 관심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김생산과 김가공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공장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나 하시였다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께서 직접 받은 교시만 해도 정말 많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김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질, 가공방법에 대하여 자

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에서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구운참김, 가공김 등 가공품들의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김은 아이들의 성장발육에도 좋고 입맛을 돋구는데도 그저그만이라고,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김을 길러왔다고, 우리 나라 참김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낫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과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43차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43차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몸소 대사회의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의 대외전략적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회의참가자들에게 거듭거듭 뜨거운 사랑과 전투적고무를 안겨주시였으며 오늘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제43차 대사회의가 잘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번 회의는 대사들이 우리 당의 대외 정책으로 재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토의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며 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고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영광의 그 날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사를가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해준 잇을수 없는 달과 해들이었다.

그동안 적대세력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이며 조선반도에서 대규모복침전쟁연습의 화약대를 퍼졌고 《붕괴》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국제무대에서 대조선체제와 압살의 광기를 부리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날로 그 위용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천하제일강국의 높은 고지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국력을 과시하는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를 날고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가는 하면 새 세기의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생겨나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있으며 사회주의바다향기 온 나라에 넘쳐나는 속에 인민들의 식생활이 날로 윤택해지고있다.

그러나 하면 약동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증명이나 하듯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체육인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는가 하면 첨단을 돌파하며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었다.

나라의 존엄과 군력을 과시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이룩된

놀라운 기적과 사변적인 성과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절세위인을 모시여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 장엄한 전변의 화폭들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맞이한 새해의 첫 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시찰로 조선이 가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는 추호도 변함없이 세상에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당시 그의 군부대시찰을 두고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면서 군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박수도 쳐주었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었다. 그분께서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잡자리를 돌아보았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김정은령도자의 땅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화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크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고 전하였다. 선군의 길 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공화국을 굳건히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의께서는 선군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권력강화에 최선을 다 하시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모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

서 하도록 하시고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고 승리의 작전도를 펼쳐주시어 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광기를 단념에 제압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미국이 핵무력까지 동원하며 공화국을 위협할 때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도 최종비준하시어 세기를 이어 벌어지는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중지를 찍고 새로운 력사의 페이지를 열기 위한 중대결심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출중한 령군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된 동지부대, 사상의 강군으로 더욱 역세계 키우시었다. 열화와 같은 동지에, 전우에를 지니시고 인민군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선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전사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뜨거운 혈연의 정을 나누시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병들의 고귀한 넋과 위훈을 인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사들을 세우도록 하시어 자신께서 묘주가 되시어 그들모두를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는 이야기는 그 어느 나라 군대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원수님께서는 비반공포사격경기대회, 추격기, 폭격기런대들의 비행전투훈련, 기계화타격집단 장갑보병부대들의 겨울철도화공격연습, 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등을 지도하시면서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현시대의 그 어느 정치가, 군사가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뛰어난 령군술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강군중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다.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군술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존엄을 떨치며 이 땅위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덕으로 강군을 통솔하신다

조국방문의 나날 신문과 TV를 보면서 가장 큰 감흥을 받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훈련일군들은 훈련장에 나가 눈비가 오면 군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칼바람이 막아 나서는 어깨를 내대고 딛고 오를 발판이 되어주며 또 여율이 나지면 징검다리 가 되어주고 머나먼 행군길에서 편한 신발창이 되어주며 추위하면 모닥불이 되어주고 더워하면 선들바람이 되어주며 총란이 날아들면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군인들의 앞가슴에 훈련영웅의 훈장과 메달이 빛을 뿌릴 그날에는 군인들이 딛고 올라설 시상대의 받침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참으로 마디마디마다 사랑과 정이 가득 담긴 말씀이어서 어운은 길다. 일반적으로 군대라고 하면 상하간에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는 집단으로 보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군대에서 장교들이 사병들을 학대하고 구라하는것은 보통의 일로 되고있다. 남조선만 보아도 장교가 사병들에게 때리는 구타와 폭행, 인격모욕을 하고 잠을 안재우며 심지어 치약 환풍을 강제로 먹이는것과 같은 폭행사건들이 떼서떼게 벌어지고있다. 그 지긋지긋한 군대생활이 너무 고통스

러워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참극도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지난해에는 윤일병타살사건에 이어 군인2명이 휴가중 《부대생활이 너무 힘들다.》, 《긴말씀 안드립시다. 힘들니다.》 라는 글쪽지를 남기고 자살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에서는 기본생활단위인 중대만 보아도 지휘관을 일러 만형, 만누이라고 할 정도로 상하일치가 너무도 잘 되어있다. 병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체질화한 군령수가 통솔하는 군집단에서 만 있을수 있는 특이한 상하관계라 하겠다.

김정은원수님의 군령도에서 특징적인것은 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병사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것이다. 병실과 식사실의 온도, 세목장의 물온도, 병사들이 사용하는 모포의 질도 가늠해보시는가 하면 군인들의 급식용 콩된장이나 담배맛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중대를 찾으실 때면 지휘관들이 만형, 만누이, 혁명전우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동무들에게 병사들을 말리고 당부하곤 하시며 지휘관들은 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이르곤 하신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량만에 넘쳐 군무생활을 해야 자신께서도 시찰의 길을 걷는 보람이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또 어느 구분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공창고앞에 이르시어 현판을 쓸어보시며 《공창고, 공창고》라고 거듭 외우신 그이께서는 부대를 시찰할 때마다 콩이 가득차있는것을 보면 푸짐한 식탁을 마주한 군인들의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었다.

군관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군관들이 있다고 하신 그의 말씀은 참으로 고귀한 명언이 아닐수 없다.

그분께서 인민군병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것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가야 한다고 하시며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안되는 최전연의 까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시어 초소군인들을 고투해주시는 사실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

하기에 오늘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친부모처럼 믿고 따르며 받드는것이다.

누구나 최고사령관을 만나고싶어하고 만나면 모두가 그분께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만세를 부르고 헤어질 때는 사품치는 바다에까지 뛰어들며 그이를 배웅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단순히 최고사령관과 병사의 관계라면 생각이나 할만한 일인가.

오늘 조선인민군이 동서고금에 있어보지 못한 사상과 도덕의 강군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인들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백두령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은 사상과 도덕의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더욱 강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도 반드시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재중동포 리호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 추모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의 추모행사가 8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백경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 회장과 베이징에서 살고있는 조선공민들, 재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한편 이날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와 료녕지구협회 회원들이 심양주재 우리나라 총령사관에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끼르키즈스탄고통련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끼르키즈스탄고통련통일련합회(끼르키즈스탄고통련)가 비슈케크에 있는 조선센터에서 회고모임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그것이 왜 사소한 문제인가,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연필문제가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정시시켰겠는가, 동무들이 연필문제를 하찮은것으로 보는 그 관점이 문제이다, 연필문제는 후대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후대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후대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것은 우리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이다, 후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가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지금 와서 연필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후대들앞에,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최책감으로 얼굴을 들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던 주제86(1997)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금 김정일장군님께서 연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공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한 일군에게 물으시었다.

그 일군이 설비들이 낡아서 능력을 내지 못하는데다 수입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으며 전기가 절렸다고 말씀드렸다.

그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런데 왜 그것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는가고 질책하시었다. 그러자 그 일군은 모건에서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일일이 보고드리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말씀올렸다.

지 못하고있던 그 일군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보관하고있는 수지연필이 있는데 당장은 그것을 풀어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지연필재고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만한 량이면 지금 당장 바쁜 대목은 넘길수 있겠다고 하시며 시름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시면서 내게를 말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처럼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있는데 동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연필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박경호위원장이 발언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정신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되어 날로 그 실효성과 생활력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일찍부터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기술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고 이 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면 자신의 평생소원이 풀리겠다고 하시며 더 많은 물고기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다 기울이신 수령님의 의도대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이르는 곳마다 양어기지들을 꾸리도록 하시었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선군12경으로 자랑높은 회한한 철갑상어양어풍경이 펼쳐질 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에는 강과 호수, 샘과 온천이 많기 때문에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샘물과 온천을 적극 리용하는 한편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적지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양어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양어한다 하시며 민물고기 양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

를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애민헌신의 로고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철갑상어양어, 칠색송어양어, 메기양어의 새 령도가 펼쳐지게 되었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나아가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이루어 놓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중의 유혹이고 평생소원이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혹 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입는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혹부터 먼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단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선의 동음 높이를 올리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양어발전을 위해 지난 5월에도 안변양어장, 신창양어장, 석막대서양어종어양장, 락산바다가연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시었다.

신창양어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켜주시는 양어혁명의 불씨를 료원의 불길로 세차게 라면지게 하자라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

며 양어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고 자연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양어품종을 더 찾아내는 것과 함께 양어못면적 대로력, 물량 대 물고기생산량을 과학적으로 따져 보고 로력절약형, 물질약형양어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어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할데 대해 지적하시었다.

석막대서양어종어양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연어양어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일이며 바다연어양어를 실현해야 우리 나라의 양어가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고 치하하시고 락산바다가연어양어사업소를 찾으시어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양어와 양식의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고 하시며 공화국이 바다양어와 바다가양식에서 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설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종일 걸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바다연어양어를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바다양어 좋을수록 어찌출이 절로 난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기뻐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일꾼들과 생산자들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다.

언제인가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원아들과 과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보내주시고 물고기를 받아안고 웃고 떠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몽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 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자한자 쓰신 글밭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갈 것이다. ...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강성국가의 밝은 미래를 안아오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우에 공화국은 머지않아 양어의 나라로 되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 인민들의 식탁은 더욱 윤택해지게 될 것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자기의 것이 제일

언제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년대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었을 때의 일을 회고하시었다.

하루는 그이께서 그 나라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는 그 나라의 음식과 함께 마늘도 있었다. 그 시기에 와서야 마늘의 약효성분에 대하여 매력을 느낀 대통령은 자기는 마늘을 처음 먹는데 마늘을 먹으면 입안의 병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져서 좋다는 자랑을 하였고

하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때 그에게 마늘의 원산지 조선이다,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마늘을 심어 먹었다, 조선의 마늘이 유럽에 퍼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늘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나한테 마늘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총명하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97(2008)년 12월 어느날 사리원시에 새로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실 때였다.

력사자료전시마당, 민속오락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풍부화된 고유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발전의 려명기로부터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왔

다고,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민속거리에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려사교양자료들을 실감있게 비치한것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며 앞으로 평양의 대성산을 비롯하여 오랜 려사가 깃들어있는 곳곳에 이런 려사교양마당을 많이 꾸리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건축에서의 생명

지난 6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건축예술품을 과시하는 하나의 곳으로 천지개벽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찾으시었다.

출발대기홀로부터 봉사홀과 귀빈실에 이르기까지 항공역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시공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주제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항공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멋이 살아난다고 하시었다.

사실 주제성과 민족성, 독창성

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철저히 보장된 항공역사로 건설되기까지는 그이의 로고와 지도가 어려웠었다. 그이께서는 항공역사건설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건축에서 주제성, 민족성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고 핵이라고,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하시고 수십여건의 개작형성안도 보시며 수석구건 손색이 없는 완전무결한 건축물로 시공하도록 정력적으로 보살피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누구나 즐겨 찾는 절승경개 모란봉

평양에는 온 나라에 소문난 명승지인 모란봉이 있다. 평양의 한복판에 푸른 숲을 띄우고 나지막하게 솟아있고 그 한옆으로는 푸르른 대동강물이 넘실대며 흘러가고 있어 예로부터 산과 물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리상적인 휴식장소로 여겨온 모란봉이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금시 피어오르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고 하여 이름도 모란봉인 이곳에는 울밀대, 최승대, 부벽루를 비롯한 오랜 려사유적들도 많다.

사방으로 탁 트인 울밀대의 봄경치나 밝은 달이 등실 떠오를 무렵에 펼쳐지는 부벽루의 풍경은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알려져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모란봉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옛 시인들이 《평귀신이 기묘하게 다듬은듯》, 《하늘 나라 즐거운 풍악소리 귀에 금시 들려오는듯》이라고 노래했고 지금은 《모란봉의 노래》, 《모란봉의 금소방울소리》와 같은 흥에 겨운 노래들이 공연무대나 휴식터, 가정들에서 청높게 울려 퍼지고 있다. 모란봉이야말로 평양의 자랑이요,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려온 조선의 자랑인 것이다.

이 유명한 곳이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의 유흥터였다. 한끼 때식마련도 제대로 못해 늘 격정속에 살아야 했던 가난한 백성들은 곁에 모란봉을 두고 도 가서 즐겁게 놀아볼 생각을 못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해방되고 공화국정권이 세워진 때로부터 모란봉은 진정한 인민의 모란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명절날, 일요일에 찾아가 시원한 그늘아래서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 모습은 모란봉의 봄, 여름, 가을풍치를 더욱 아름답고 흥취나게 해주었다. 푸른 숲 우거지고 온갖 꽃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이 절승경개에는 현대적인 유희시설을 갖춘 큰 공원과 꾸러져 문화정서생활을 하는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유서깊은 모란봉을 인민의 모란봉으로 되게 하여주시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3월 모란봉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이 푸른 숲 설레이는 이곳

에 너도나도 찾아와 즐겁게 휴식할 때일을 그려보시며 김정숙녀사와 어리신 자제분과 함께 나무를 정성껏 심으시었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며 복구건설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모란봉을 하루 빨리 복구하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모란봉의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게 유적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고 승리각, 평화정, 송가정, 서작정, 애련정과 같은 정각들이 도처에 일떠섬으며 식당, 그네터와 씨름터, 널뛰기터도 곳곳에 꾸러져 모란봉은 그야말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로 그 모습이 일신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1980년대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시었을 때의 일을 회고하시었다.

하루는 그이께서 그 나라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탁에는 그 나라의 음식과 함께 마늘도 있었다. 그 시기에 와서야 마늘의 약효성분에 대하여 매력을 느낀 대통령은 자기는 마늘을 처음 먹는데 마늘을 먹으면 입안의 병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져서 좋다는 자랑을 하였고

하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때 그에게 마늘의 원산지 조선이다,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마늘을 심어 먹었다, 조선의 마늘이 유럽에 퍼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늘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나한테 마늘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총명하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 모란봉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
← 인민들이 즐겨 찾는 개선청년공원

천지개벽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농장도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날에 날마다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변모되어가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시대가 태어났다.

농장도시!
이것은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문명개화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 대한 찬사이다.

이 농장에 새로 꾸러진 크고 아담한 수많은 살림집들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된 이곳 농장원들이 부럽다고 말하고 있다.

흔히 농촌길이라면 토사도로를 생각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세멘트포장을 한 도로와 청석을 깔 도로를 따라 발에 흙만 번 묻히지 않고 집에서 문화회관과 장천원,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온실농

장으로 오가고 있다. 생활에서 물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에 특효있는 장수생물이 나오는 고장이라고 하여 장천이라고 불렀다는 이곳, 이런 장수생물이 새로 꾸러진 농장마을의 집집은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장천원과 온실농장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흘러넘친다.

농장에서는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고 있다.

농장원가정들에서 남새를 데치고 국수를 삶는것을 비롯한 모든 일은 주력지붕에 설치된 태양열물가열기로 덥혀진 물로 하고 있다. 물온도를 조절하여 아무때나 더운물로 부엌일도 하고 목욕도 할수 있게 되어있다.

새 집에 입사하여 부엌과 살림방에 붙어있는 태

양열물가열기설명서와 태양빛전지사용설명서를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던 이곳 농장원들이다. 저녁이면 문화주택구내길의 태양빛전지가로등의 환한 불빛이 장천지구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농장원들누구나 도시 부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리상향으로 변모된 하나의 대형전경화를 보는것같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마을, 파수원화가 실현된 이곳에는 복숭아나무동네, 살구나무동네, 주리나무동네, 앵두나무동네로 불리우는 마을들이 많다.

그 어디에 둘러보아도 절로 경탄이 터져나온다. 종합적인 봉사기지인 장천원만 보아도 평양시내의 창광원 못지 않다. 설계를 시공을 특색있게 잘 한 2층짜리 건물에는 목욕, 리발, 미용, 옷수리,

신발수리, 사진, 청량음료 등 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고 베풀타기시설이 있는 물놀이장까지 꾸러져있다.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않게 꾸러진 문화회관과 그네타기와 씨름, 널뛰기를 할수 있게 꾸러진 민속놀이장이며 수영장, 로라 스케트장, 배구장에서는 밝고 활기에 넘친 농장원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른다.

그뿐이 아니다. 컴퓨터들과 갖가지 분석설비들을 갖춘 과학기술보급실이며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생태환경온실들로 변모된 수백동의 온실들, 모든것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이곳 마을에 와본 도시사람들도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사람들은 이곳 농장에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을 가리켜 《농장원들을 낳새박사로 키우는 대학》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보급실이 농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은 물론 농장의 먼 앞날까지 담보해주는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기에 때문이다.

이곳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은 생산과 과학기술을 결합하고 경영활동을 과학화, 정보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

고 있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 미생물분석실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토양의 산도와 린, 산화칼리움, 동, 아연과 같은 다량 및 미량원소들의 함량, 농업관계용수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수자지도화하여 남새생산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병해충들의 종류와 발생정도를 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안전한 남새수확을 담보해준다.

이뿐이 아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의 용량이 큰 봉사기들은 작업반들과 종합지령실, 관리위원회 등과 련결되어 경영활동의 정보화실현에서 큰 몫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이 농장의 수십명 농장원들이 컴퓨터망에 의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원격교육대학강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의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알맞은 우량품종의 선택으로부터 영양강화제의 도입, 유기생태형재배기술, 종합적인 병해충관리기술과 같은 선진영농기술, 온실환경관리기술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벌리고 있다.

머지않아 수십명의 농장원들이 원격대학을 졸업하게 되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평양시 사동구역에 자리잡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온실남새생산규모가 대단히 크고 과학화, 집약화수준이 높다.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백동에 달하는 온실들이 줄지어 늘어진 모습은 마치 온 들판을 통채로 박막으로 뒤덮은것처럼 보인다.

온실의 형태도 토벽식박막온실, 궁룡식련동온실 등 여러 가지인데 온실안에서는 오이와 도마도, 호박, 가지, 배추, 무우, 푸초를 비롯 갖가지 남새들이 자라고 있다. 남새1작업반장 지철향의 말에 의하면 궁룡식련동온실 한동에서만도 하루에 1.5~2에 달하는

도마도를 수확하고있다고 하니 하루에 얼마만 한 남새가 생산되고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토벽식박막온실도 벽체에 여러층의 단을 매고 여러가지 남새들을 립체적

소출을 낼수 있다. 이 농장의 매 온실들에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되어있어 온실안의 온도와 습도, 비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동적으로 측정되게 되어있다.

온실남새생신의 본보기, 표본농장으로

으로 키우고있어 실리가 크다. 이 온실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특히 큰 고추와 가지, 푸초싱싱한 푸초이다.

온실재배에서는 작물의 특성에 맞게 온도, 습도, 빛, 토양, 탄산가스 등 조건이 잘 보장되어야 높은

측정된 수치들은 작업반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농장 종합지령실과 관리위원회에 보내지며 제때에 영농조건변화에 따르는 영농공정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농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한 통

합생산지휘정보화와 영상회의체계를 리용한 실시간농업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화하고 농업생산지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남새생산을 적극 늘이고 있다.

이처럼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온실남새생신의 본보기, 표본농장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이 행사하는 선거의 권리

7월 19일은 공화국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다. 대의원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것은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것은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가 실시되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제도도 많지만 그 성격과 목적,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공화국의 선거 제도처럼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는 찾아볼수 없다.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참가하는 우월한 선거 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남녀별과 민족별, 직업과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참가하는것이 공화국의 선거제도이다.

공화국의 각급 주권기관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기초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년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선거자들도 이동투표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준다.

이런 선거제도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 지식정도, 거주기간 등의 법적 제한조건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선거권도 보장되지 않고있다. 인종차별과 계급적대립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선거결과가 날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선거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유린하

는 제도라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의 참된 복자들이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공화국에서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을 인민의 대표로, 국가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한다. 여기에는 《우리》라는 값높은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들도 있고 로동자들도 있으며 농장원, 과학자, 조국의 영예를 떨친 예술인, 체육인들도 있다.

이들속에는 녀성들도 많다. 국가와 사회앞에 큰일을 하여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주권기관을 꾸리게 함으로써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이야말로 공화국의 선거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경쟁에 나서자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높가의 오로도 주지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수 있는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엄두도 못내는것은 당연하다.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현실을 놓고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로동자, 농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대의원으로 추천되고있는 조선의 현실이 부럽다.》, 《이북의 선거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김정원수님의 품속에서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해보았으면 원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다.

김광역

존경받는 로동자 대의원

평양시 중구 역대동강유원지관리소 로동자 김금선이라고 하면 몇해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평소에 제 자랑을 할줄 모르는 겸손함도 있지만 기본은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우지 않는 그의 직업상 특성 때문이라 해야 할것이다. 김금선이 하는 일이란 잔디를 깎고 꽃을 가꾸고 유보도를 청소하는것 등이다.

휴식일이나 명절날 대동강 유보도를 거닐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치고 그의 수고를 헤아리는 사람은 적다. 하지만 그는 예나 지금이나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으려 하며 누가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땅심을 바쳐오고있다.

그런 그를 많은 사람이 알게 해준 계기가 있었다. 2011년 7월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며칠 앞둔 어느날 어느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오를 그가 아빠트현관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영문도 모른채 사람들속에 둘러싸였다.

《대의원 후보자동지들 열렬히 축하해줍시다!》
《우리 인민반, 우리 동지의 자랑이예요.》
...

어안이 벙벙해진 그를 동네사람들이 선거명부가 나붙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거기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로 그의 사진이 나붙은것이 아닌가. 잘못 보지 않았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틀림이 없었다.

이름: 김금선
직장직위: 평양시 중구 역대동강유원지관리소 로동자

순간 그는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짝 메어올랐다. (로동자인 내가 대의원 후보자라니!!)

그로 말하면 나라의 부강번영에 크게 기여한 이름난 과학자도 아니고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여 공화국기발을 휘날린 이름난 체육인도 아니었다. 한 것이 있다면 근 30년을 대동강유원지관리소에서 로동자로 묵묵히 일해온 경력이 전부였다. 그의 부모들은 물론 다섯형제모두가 자기처럼 로동자들이다.

이렇듯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자기를 정사를 논하는 주권기관의 대의원후보자로 내세워주었으니 너무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걸잡을수 없었다고 한다.

그후 그는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애썼다.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심고 가꾸어도 인민의 참석

상을 보다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 따따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유보도를 한번 쓸고 잔간을 한번 닦아도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나라의 고마운 시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할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였다.

그런 그를 함께 일하는 관리소성원들은 물론 대동강유원지를 찾는 사람들모두가 존경하고 따랐다. 지나가던 유치원꼬마들도 《우리 대의원어머니》라며 저마끔 안겨들었고 아빠트사람들도 그를 도와주기 위해 진심으로 원심을 썼다.

김금선은 말한다. 정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평범한 로동자인 자기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주시었을뿐 아니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이번에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또다시 추천된 그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더 잘 받들어갈 애국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우리 식의 생물농약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



김금선녀성 (가운데)

오늘도 1960년대의 천리마시대를 감회깊이 추억해주는 천리마동상은 창공높이 날고있다.

위대한 변혁의 시대, 김정은시대에 공화국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며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다.

우리 나라 사실주의조각가 조규봉은 천리마동상이 세워지던 나날 중심창작가가 되어 동상창작에 적극 기여한 조각가였다.

그는 착잡한 인생을 걸어나오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만 참다운 예술가의 보람과 긍지, 영예와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체험한 조각가로서 오래전에 우리결을 떠나갔다.

1917년 3월 경기도 인천시 사무원가정에서 둘째아들로 태어난 그는 나라없는 민족의 불행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그가 어린시절을 보내고 청년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최정점을 이루던 나날이었다. 일제는 우리 겨레에게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면서 사립학교들을 강제폐쇄하고 조선인교육기관을 극력 제한하였다. 학교들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배워주고 조선의 력사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천 리 마 는 하늘을 날라

와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노예교육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미술전문교육은 고사하고 사실주의조각을 발전시킨다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예능학교가 없었던 사정으로 하여 조규봉도 19살 되던 1936년에 미술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1년간 미술기초수업을 하고 이듬해 동경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였다. 조규봉은 그 시 조선에는 조각가가 거의 없기때문에 자기가 조각분야를 개척해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조각과에 들어갔던것이다.

그는 재학당시에도 학생전람회개 열릴 때마다 작품을 내놓았다. 진보적미학관을 가졌

던 그는 대학졸업후 조각 《각성》, 《소대의 얼굴》 등 사실주의적 현실주의와 인물조각들을 창작하였다.

교활한 일본놈들은 조선학생들이 훌륭한 작품에는 성과 이름을 일본어표기로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규봉은 자기 이름을 떼뺏이 조선글로 써서 내놓았다. 이것은 민족적자랑을 지키려는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향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창작열기를 가지고 조선미술건설본부에 몸을 맡기고 선전화, 구호판, 프랑카드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좌익적인 조형예술동맹을 조직하고 8.15해방축전람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1946년 7월 하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강원도 해방림건설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조각가 김정수, 화가 리석호와 함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다.

온 나라 인민이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선 공

화국의 벽찬 현실을 보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으로 올라와서 북조선미술가동맹 조각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참다운 창작생활을 하게 되었다.

1946년말 모란봉에 해방탑이 건립될 때 부각을 창작하는데 참가하여 조각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조규봉은 해방직후 새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의 목적과 성격을 반영한 부각창작이 제기될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열성을 다하였다.

그의 창작생활에서 전환적계기로 된것은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참가하여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의 지도를 받게 된것이었다.

그는 김정숙녀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에 감격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훌륭히 창작하여 모시었다.

1948년에는 우리 나

라에서 첫 인민의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청사에 세울 조각 《민주대학생》을 창작건립하였다.

또한 1949년에는 절세위인을 인민주권기관의 첫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 력사의 고장인 강동에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가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창작하여 모신것은 그의 인생에서 극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그는 1949년부터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 교원, 강좌장을 오래동안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밑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1967년), 《만수대대기념비》(1972년), 《왕재산대대기념비》(1975년) 등 대기념비창작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승리》(1954년), 《수확의 기쁨》(1955년), 《항일빨치산영웅들》(1955년), 《남녘땅의 어머니》(1959년) 등 우수한 일반조각들도 창작하였다.

조규봉은 1960년대 초 평양의 한복판에 천리마

동상이 세워질 때 장엄한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창작집단의 중심창작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주제 50(1961)년 4월 15일 성대한 천리마동상제막식장에 몸소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창공높이 날아가는 기적의 천리마, 전설의 천리마, 우리 인민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천리마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창작가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지금도 낮이나 밤이나 선군조선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을 썩 날고있는 천리마를 볼 때면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애국의 마음과 열정을 안고 창작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던 조규봉을 비롯한 조각가들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조규봉은 현대 우리나라 조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각가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그는 1947년 공화국의 품으로 들어와 고향 인천으로 가지 않은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옳은 선택이였는가에 대해 늘 가족들과 친구들앞에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최명수



남조선당국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만행은

대결에 환장한자들의 치떨리는 반인륜적만행

지난 14일 남조선당국이 남측지역에 표류되었던 5명의 공화국선원들을 전원송환할데 대한 공화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명만을 판문점을 통하여 돌려보내고 나머지 3명은 끝끝내 억류하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는 공화국국민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억류된 3명의 선원들은 6월 22일 어선을 타고 동해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기상악화와 배고장으로 뜻하지 않게 조난당하여 남측지역으로 표류되었던 공화국의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바다로 나가기 전날 달력에 7월 17일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이날에 꼭 돌아와 자식들에게 자전거와 놀이감을 사다주겠다고 약속한 평범한 쌍둥이 아버지였고 남편이 있으며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던 평범한 아들들이었다.

억류된 3명의 선원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들로서 뜻밖의 재난으로 표류되었을뿐 그 무슨 전쟁포로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귀순》이니,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것》이니, 그 무슨 《인도주의적원칙》이니 뉘니 하고 떠들어대며 끝끝내 3명의 공화국국민들을 억류한채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판문점에서 돌아오지 못한 3명의 가족들이 남조선당국에게 피라게 절규하며 강력히 항

의한바와 같이 돌아오지 못한 3명의 선원들이 《귀순》하였다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억지로 꾸며낸 모략이고 날조일뿐이다.

송환된 선원들이 폭로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5명의 선원들을 처음부터 따로따로 격리시켜놓고 남조선에 떨어지면 살기 좋게 해준다는 귀짓 좋은 유혹과 공갈, 회유와 기만으로 《귀순》공작에 미쳐날뛰었다.

하여 그들은 서로가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송환된 선원들 역시 나머지 3명의 생사여부조차 전혀 모르고있다.

《본인의 의사》라면 남조선당국은 왜 3명의 선원들을 가족들앞에 떳떳이 내놓지 못하고있는가. 이것은 바로 저들의 범죄적책동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러워서이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고 사람들을 해당 나라와 혈육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은 보편적인 국제관례이고 초보적인 인도주의적요구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벤벤스럽게 그 무슨 《국제적관례》를 거들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그들을 돌려보내주는커녕 인적사항통보와 가족면회조차 외면하고있으니 이것이 바로 안팎이 다른 남조선당국의 진면모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자는 《리산가족상봉》이요, 그들의 《아픔》이니, 《고통》이니 하는 회떠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것이 속에 없는 허끝의 소리이고 진속은 북남대결을 지속시키고 북의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어리석은 《체제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뜻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족과 갈라놓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생리별시키는 이런 간악한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고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민족분열의 비극으로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북과 남에 갈라져 살며 아직도 가슴아픈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을진대 또 다시 혈육간의 생리별을 고의적으로 조장시키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책동은 동족에 대한 레오행위이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칼질을 해대는 짐승도 낫을 붉힌 악랄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판문점에서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책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혈육들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내 남편, 내 아들을 돌려보내라.》고 절규하는 그 피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겨레는 누가 북남대결과 민족의 분열을 꾀하는 반통일무리들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만들어내는 반민족적인 모략과 날조소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억류한 선원들을 하루빨리 혈육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지난 14일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의 거둬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표류되었던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전원송환을 거부하고 그들중 3명에 대해 그 무슨 《귀순》을 운운하며 끝끝내 남조선에 억류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 치떨리는 반인륜적만행은 그들이 추구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 동족대결책동의 연장선상에서 감행된것이다.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체질화된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껏 갖은 모략과 날조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만 부추기며 체제대결책동에 광분해왔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 등이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귀순공작》과 유인람치책동으로 북남대결을 앞장에서 조장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개잡이나갔다가 질은 바다안개때문에 표

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집단람치한것도, 공화국의 나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람치하여 3국을 통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했던것도 이 모략기구들이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통일부가 《도강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비열한 유인, 람치소동에까지 직접적으로

러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이뿐 아니라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고 떠들어대고 《극도의 공포정치》요, 《체제불안정》이요, 《고위급인물들의 대량탈북》이요 하는 모략과 날조에 미쳐 날뛰고있는것도 남조선집권세력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공화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강제억류하고 가족들과 생리별시키면서까지 동족대결책동에 지랄발광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저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고 인륜을 거역하며 동족대결책동에 혈안이 된 대결광신자들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동족대결의 연장



본사기자 서 희

공화국주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라

◇ 각 계 층 주 민 들 성 토 ◇

또 흠어진 가족을 만들려느냐

남조선괴뢰패당은 썩하면 《리산가족상봉》이요 뉘니 하고 제쳐왔다. 얼마전에도 집권자가 나서서 북남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중에 《리산가족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회떠운 소리를 하였었다.

그것이 속에 없는 거짓말이고 체제대결의 야욕밖에 없었다는것은 우리 주민들을 강제로 억류해두고있는 사건만 봐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들의 반인륜적책동이 그대로 목인되면 또 새로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생기게 된다는것은 자명하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과 전쟁으로 북과 남에

가족들을 생리별시키는 악행

표류된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억류한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책동은 북에 있는 안해와 자식, 부모형제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생리별의 아픔을 강요하는 최악의 죄악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바다에 나갔던 선원들에 대한 강제억류소식을 전해듣고 북에 있는 안해는 실신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말들을 쏟아낼 체면이 있는가.

남조선당국이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인도주의》는 혈육들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가족들이 몸부림치게 만드는것이다.

또한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여 북남관계를 헤어나올수 없는 파국의 구렁

《귀순》이 아니라 강제억류이다

남조선당국이 앵무새처럼 외우는 3명선원들의 《귀순의사표명》은 새빨간 거짓이고 날조이다.

억류된 선원들은 모두가 자기 안해와 자식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억류된 선원들속에는 쌍둥이 아버지도 있다고 한다.

찰찰 감겨드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이번에 돌아와 자전거와 놀이감을 사주겠다며 손가락질고 철석같은 약속을 한 이들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버릴수 있으며 단란한 가정의 화목을 파괴할수 있단 말인가.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링이에 몰아넣음으로써 흠어진 혈육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제관례》라는 그 궤변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억류한 선원들을 당장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1동 김성녀

이런 사람들에게 남조선당국의 《귀순》강요행위가 통할리 만무하다.

남조선당국의 비열한 《귀순》강요행위는 송환된 선원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기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선원들의 눈을 싸매고 서로 다른 방에 가두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모두가 떨어지겠다고 하였다.》느니 뉘니 하는

무 자 비 한 징 별 을

남조선당국의 치떨리는 반인륜적악행에 심장이 꿈틀거리고 온몸에 분노의 피가 차오른다.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적원칙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신과 리간을 조성하려고 발악하는 등 갖은 비열한 방법으로 《귀순》을 강박하였다.

이번에 억류된 선원들의 가족들이 판문점에 나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강제억류해두고있는 남조선괴뢰당국의 만행에 격분을 터뜨리며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해치운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그 무슨 《귀순》이라는것이 역적패당이 꾸며낸 서투른 연극이고 치사한 궤변이라는것이 너무도 명백히 립증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계속 남쪽에 억류해놓고 대결모략책동에 리용해보려는 망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강제억류하고있는 우리 선원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황해북도 곡산군 최금찬

망이 조개잡이나갔다가 질은 바다안개때문에 표류된 공화국주민들을 집단람치하고 또 나 어린 청소년들마저 유인람치하여 남쪽으로 집단적으로 끌어가려고 했던것도 TV를 통해 봐서 잘 알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과 동포애는 물론 인륜과 천륜마저 저버리고 동족대결에만 미쳐날뛰는 이런 악한들의 몸통이에 어떻게 조선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초보적인 사회론리도 천륜도 안중에 없는 국제정치광대, 강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망나니짓을 할수가 없다.

력사는 인륜을 짓밟고 천륜을 어긴 잔인무도한 야수들에게 반드시 비참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평양시 평전구역 간성동 박주혁

모략의 희생물로 만들지 말라

남조선당국은 표류되었던 선원 5명을 전원송환할데 대한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를 끝끝내 무시하고 아직도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있다.

이는 선원들을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제물로 삼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 인간쓰레기인 《탈북자》들을 동원하다 못해 해외에 있는 수많은 공화국주민들을 람치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려왔다.

남조선당국이 유인되었던 공화국을 찾아온 박정숙녀성을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황 춘 길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발표

남조선당국이 얼마전 동해상에서 뜻밖의 사고로 표류된 우리 주민 5명 가운데 3명을 강제억류하는 반인도주의적범죄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1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 선원들이 조난당하여 남조선해상으로 넘어간 때부터 선원전원을 부모처자가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지체없이 돌려보낼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수차례 보내었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남편, 자식들과의 직접회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괴뢰패당은 조난당한 우리측 주민 3명을 《귀순》이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송환을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괴뢰패당이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3명의 인적사항을 시급히 보내주며 그들이 판문점에서 가족들과 면회할수 있도록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을 거듭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국제관례》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꾀변을 늘어놓으

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였을뿐 아니라 14일 오전 판문점에 나와 민족분렬의 비극적산물인 흠어진 가족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절감하며 혈육과의 직접대면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란도질하고 끝내 3명을 송환하지 않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악행을 감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번에도 또다시 감행된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공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또 하나의 극악한 중대도발로 낙인하고 준렬히 단죄구탄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는 표류되어 우리측지역으로 들어온 남조선어민들과 선박들을 리유여할 불문하고 모두 돌려보내주었으며 특히 우리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남조선주민들도 설복하여 가족, 친척들이 살고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는 숭고한 인도주의정신과 동족애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우

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법적이고 강압적인 《귀순》을 강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괴뢰패당의 이렇듯 악랄한 《귀순》강박놀음은 날로 더욱 분별을 잃고 날뛰는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연장으로서 입위를 꺼림없이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만행으로 하여 판문점에서는 생애같은 혈육들과 헤어지게 된 아픔을 피리지 않고 호소하며 남편과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던 가족들이 실신하여 쓰러지는 참상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지난 기간 괴뢰패당이 정보원, 통일부, 군부, 경찰 등으로 《합동조사단》이라는것까지 못고 집요한 협박과 회유기만책동에 매달리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귀순》시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인질로 써먹으려고 발악하여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이번에도 괴뢰패당은 우리 주민들을 끌고간 후 눈을 싸매고 서로 다른 방에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모두가 떨어지겠다고 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신과 리간을 조성시켜보려고 발악하는 등 갖

은 비렬한 방법으로 《귀순》을 강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괴뢰패당의 이렇듯 악랄한 《귀순》강박놀음은 날로 더욱 분별을 잃고 날뛰는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연장으로서 입위를 꺼림없이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만행으로 하여 판문점에서는 생애같은 혈육들과 헤어지게 된 아픔을 피리지 않고 호소하며 남편과 아들과의 면회를 요구하던 가족들이 실신하여 쓰러지는 참상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지난 기간 괴뢰패당이 정보원, 통일부, 군부, 경찰 등으로 《합동조사단》이라는것까지 못고 집요한 협박과 회유기만책동에 매달리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표류한 우리 주민들을 《귀순》시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인질로 써먹으려고 발악하여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이번에도 괴뢰패당은 우리 주민들을 끌고간 후 눈을 싸매고 서로 다른 방에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모두가 떨어지겠다고 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신과 리간을 조성시켜보려고 발악하는 등 갖

억류된 우리 주민들의 가족, 친척들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당국이 공화국공민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행위 감행하였다.

6월 22일 어신을 타고 동해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공화국주민 5명이 기상악화와 배고장으로 뜻하지 않게 조난당하여 남측지역으로 표류되었다.

남조선당국은 14일 오전 우리 주민 5명중 3명을 억류하고 나머지 2명만 판문점을 통하여 돌려보내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리선을 넘어선 2명의 우리 주민들은 고향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감격에 겨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한편 이제나저제나 혈육들을 안아볼 시간만을 애라게 기다리던 나머지 3명의 가족, 친척들은 자기들의 남편과 자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괴뢰패당의 반인륜적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판문점에서 항의투쟁을 벌리었다.

현지에서 억류된 우리 주민들의 가족, 친척들과 송환된 주민들과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가족, 친척들은 혈육

들이 공화국을 배반하였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가족들의 직접대면확인조차 거부하며 화목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처자들을 생리별 시킨 괴뢰패당의 비인간적인 망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송환된 우리 주민들은 혈육들이 안타깝게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게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들을 서로 격리시켜놓고 갖은 유혹과 공갈, 회유와 기만으로 《귀순》공작에 미쳐날뛰는 괴뢰당국의 집요하고 비렬한 책동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이어 억류된 주민들의 가족, 친척들이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항의문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혈육들이 《귀순》하였다는것은 남조선당국이 억지로 꾸며낸 모략이고 날조이라고 하면서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그것도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가족과 갈라놓으려는 간악한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란다면 지체없이 억류한 혈육들을 부모처자의 품으로 무조건 돌려보

내야 한다고 항의문은 강조하였다.

손꼽아 기다리던 남편,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수 없는 현실에 너무도 억이 막히고 분통이 터져와 《내 남편을 돌려보내라.》, 《내 자식을 돌려보내라.》, 《내 놈들도 사람이냐, 인간배정들이냐》라고 웨치며 억류된 혈육들을 목놓아 찾고 부르는 가족, 친척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남녘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이번에 남조선당국들이 감행한 반인도주의적이며 반인륜적인 만행은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계속 품을 물어가며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우선실현》을 요란스럽게 떠들던 남조선당국의 추악하고 위선적인 정체를 또다시 날날이 발가벗겼다.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대결과 모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민족적, 반인륜적범죄도 서슴지 않는 야만의 무리들이다.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를 훼손시키고 동족대결과 분렬을 극구 고취하려고 적십자인도주의 문제까지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며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지난 4월 공화국에 불법입국했다가 체포된 주민들이 얼마전 미국 AP통신, 일본 교도통신 등 평양주재 외신특파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가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있다고, 지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불법입국으로 법을 어긴 사실을 잘 알고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였다.

TV를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스 1》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론론들은 주원문의 기자회견이 최근 동해상에서 발생한 공화국 선원들의 송환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신경전을 벌린것과 무관치 않아보인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의 통일부하는 대

변인을 내세워 《주씨의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진행한것에 유감을 표한다.》느니 뭐니 하던 끝에 공화국에서 체포된자들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조난당한 북의 어민들을 강제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은 저들의 반인륜적악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생역지이고 구차한 꾀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의 기자회견은 주원문 스스로 요청한것으로서 남조선당국이 강제억류한 우리 어민들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원문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실토한것처럼 그는 공화국의 법을 어긴 죄인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이 《불법억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 김정숙이나 김국기, 최춘길은 남조선 정보원의 임무를 받고 의식적으로 북에 들어온자들이다.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를 어찌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이자들

세상에 이런 날강도적인 꾀변이 또 어디에 있는가.

남조선당국이 불법비법적으로 강제억류한 공화국의 어민들은 자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써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죄없는 공화국의 어민들을 강제억류하고 저들의 부당한 반공화국적대모략행위에 리용하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인륜적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과 뜻밖의 조난으로 남조선에 떠돌아다니는 어민들의 송환문제를 련걸시키면서 아부재기를 치는것은 그야말로 범죄문제와 인도주의문제가 같고같다는 파렴치의 극치이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적인 꾀변이 또 어디에 있는가.

남조선당국이 불법비법적으로 강제억류한 공화국의 어민들은 자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써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죄없는 공화국의 어민들을 강제억류하고 저들의 부당한 반공화국적대모략행위에 리용하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인륜적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강제 억류된 우리 주민들의 가족, 친척들이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

지금 남조선당국은 고약한 대결속통에 어울리지 않게 《대화》타령을 늘어놓아 내외의 조소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0일 남조선당국자는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라는데서 《모든 현안을 대화탁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느니, 《북도 용기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14일 그 무슨 《발대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라는데서는 《남북철도련결》이요, 《평화통일》이요 하는 뻘뻘스러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잇달아 수하졸개들도 《남북대화를 위한 가능한 대부분의 조치를 하고있다.》느니, 《당국간 대화에 있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만나서 대화할수 있

다는 립장을 이미 밝히고 있다.》느니 하며 마치도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다른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듯이 주절대였다.

이것은 결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판이하게 다른 남조선 현 집권세력의 풍수없는 입방아질이다.

남조선당국의 《대화》타령은 철저히 세인에 대한 기만이며 《관계개선》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는것은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말장난일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 와 관계개선에 대하여 운운할 체면도, 자격도 이미 전에 상실한지 오래다.

공화국은 올해 정초부터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신년사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통하여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제의와 인내성있는 노력에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담해나섰고 공화국정부성명에 대해서도 《부당한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고 험뜰으며 대결불집만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

또한 《극도의 공포정치》니, 《체제불안정》이니, 《불확실성》이니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악담으로 체제전복기도를 드러내는데 서슴지 않고있다. 며칠전에는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또다시 벌려놓고 바다에 고기잡이나갔던 공화국의 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억류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있다.

이 모든것이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 대결의식의 산물로서 그 목적이 관계개선이 아니라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고 《체제통일》의 흥심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 판에 《대화》를 운운하는것이 너무도 낮이 간지럽지 않은가.

속에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를 품고 그 누구와 만나자고 하는것이야말로 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이고 겨레의 통일일망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통일을 위한 대화와 동족을 해치려는 대결모략책동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가 더 악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속에 품은 칼부러 버려야 한다.

리 어 금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가 14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안당국의 부당한 폭압소동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공안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주장하고 국민의 기본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가한 단체성원들을 불법으로 몰아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현 《정권》이 파조적본색을 드러내며 공안통치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사출신인 황교안을 《극무총리》로 임명한것은 공안통치의 예고라고 비난하였다.

이 땅에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불법단체, 죄인으로 몰려 탄압받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나 공안통치가 극성을 부릴수록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

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단체에 대한 부당한 폭압소동에 항의하여 법적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이 기자회견과 재판정에서 한 자백들이나 전시된 각종 정탐용도구들은 그들의 불순하고 치밀리는 범죄적죄행을 고발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자기의 존엄과 제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으로 여기는 공화국이 그 자들의 죄행에 맞게 단호히 징벌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통치위기수습과 반복대결을 노린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반 공화국허위모략선전을 전 레없이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공화국을 반대하는 허위 모략선전이 어느 하루도 벌어지지 않은적이 없었지만 현 《정권》에 이르러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은 선임자들보다 무색할 정도로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모략내용도 극도로 비렬하고 저속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얼마전에 또 당국의 사육을 받은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맹독성란저균의 생산시설》,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이라는 미국산정기모략선전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일리가 있다》느니 뭐니 하며 맞장구를 쳐왔다. 뿐만 아니라 짝하면 《극도의 공포정치》와 《체제불안정》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악설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고

위급간부들의 대량탈북》이라는 터무니없는 모략날조선전을 꾸며냈다가 그것이 여론화되자 《정부》당국자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하며 구구히 해명하는 회비국까지 벌어졌다. 오늘 남조선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허위모략행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날로 심화되고있는 통치위기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의 무능력과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전염병사태가 더욱 확대되면서 제2의 《세월》호참사를 돌아오고있다. 더우기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못해 독단과 전횡으로 수하졸개마저 마구 물어메치는 집권자의 전횡과 독재통치로 하여 정국마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다. 하여 현 집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그의 집권이

레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있다. 상전의 비법적인 탄저균반입책동을 비호두둔하며 남조선을 통째로 미국의 세군무기시험장으로 내맡기고도 모자라 과거 최악을 부정하며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과 《관계개선의 원년》이니,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니 하며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당국의 시대대국책동에 대한 민심의 분노도 하늘을 찌를듯 하다. 《체제통일》을 노린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도 총체적위기에 빠져들고있다. 어리석은 《체제통일》망상에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에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으면서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한결같이 요구해나서고있다. 미국내부에서조차 《북붕괴》설에 대한 회의설이 나돌고있는 형편이다. 극도로 당황한 남조선당

국은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반공화국허위모략선전으로 남조선내부에 동족적대의를 고취하고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성난 눈초리를 다른데로 돌리는 한편 어리석은 《체제통일》야망을 이룩해보려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가 비밀리에 반공화국모략선전의 본지인 정보원을 찾아 《공포정치》니 뭐니 하며 《북의 내부를 잘 짚어보라.》고 쫓겨오기도 하고 무관하지 않다. 반공화국모략책동이 강화되면 필수폭 대결과 긴장이 격화될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종착점은 총돌과 전쟁이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 총체적위기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꾀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과멸의 촉진제이고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불법해킹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는가

망하는 집안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지금 남조선당국이 바로 그러하다. 최근 남조선정계는 불개미가 집안 쭈셔놓은것같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남조선의 정보원이 지난 2012년부터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남조선 각계층의 컴퓨터, 손전화기 등에 대한 불법감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새 없기때문이다. 얼마전 인터넷에 공개된 어느 한 조사기관의 해킹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감시대상자의 손전화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장치제작수는 최소 87차이상 된다고 한다. 가장 최근것은 올해 6월 29일에 한것으로서 불과 보름전까지도 정보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감시활동을 해왔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이에 당황한 남조선의 정보원장이라는자는 《북의 해킹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이라느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한적이 결코 없다》느니, 《국민에게 활용할 이유가 없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만 일삼았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정보원이 이전 시기에도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도청 및 감시활동을 해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와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은 있을수 없다.》고 한 정보원장의 변명은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가 지난 2012년 1월과 7월로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직전과 일치하라는것이다. 특히 남조선의 정보원이 《대선》 직전인 12월 6일에 해킹에 필요한 30개의 장치를 추가주문했다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볼 때 불법해킹사건은 결코 공교롭거나 우연한것이 아니라 《대선》을 목적으로 하여 현 집권자의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권력의 시너》인 정보원이 의도적으로 진행한것이라는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범죄적인 해킹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묵인, 본사기자 황진욱

미국의 《싸드》 배치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국의 《싸드》 배치책동을

반대하여 9일부터 시작한 평화행동투쟁의 하나로 10일 서울의 청와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미국무성 차관보의 남조선행각을 레서롭지 않게 보는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싸드》의 남조선영구배치를 주장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차관보의 행각목적이 선제공격무기를 남조선에 영원히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공식화하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차관보의 이번 행각이 걸로는 안보 등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가

지난 5월 《싸드》를 남조선에 영원히 배치할 가능성을 다진하는 중이라고 밝힌것으로 하여 의문이 크다고 단죄하였다. 《싸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남조선을 영위하려는 동맹에 묶여두려는 정치적목적의 산물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싸드》의 남조선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시급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는 외교부앞으로 이동하여 항의투쟁을 계속 이어갔다. 본사기자

이에 당황한 남조선의 정보원장이라는자는 《북의 해킹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이라느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한적이 결코 없다.》느니, 《국민에게 활용할 이유가 없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만 일삼았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최근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유엔을 도용하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미국의 책동이 그중의 하나이다. 유엔을 악용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그 역사와 뿌리가 깊다. 8.15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하나의 조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의지와 요구에 역행하여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기 위해 음모적으로 책동하였다. 그 선상에서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고 양요와 압력의 방법으로 《유엔조선위원단》을 내오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민족분열을 《합법화》한것이다. 이로 하여 유엔에는 미국에 의해 치욕의 오점이 생겨났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저지른 극악한 전쟁범죄이다. 유엔헌장 제34조는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마찰이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의 지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조선전쟁발발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결의를 채택할 때 유엔사무총장으로 보내여온 남조선주재 미국 대사 무효의 보고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만을 기초문

건으로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것들은 미국이 고안했거나 친미 《정권》인 이승만당국으로부터 얻은 정보자료에 기초한것으로 심히 날조되고 과포된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확인도 없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결과 비법적인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15개 추종국가와 남조선, 군국주의일본까지 끌어들이었다. 유엔헌장 32조는 분쟁문제가

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에도 미국은 세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들을 감행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날로 가중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북침책동,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되어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공화국이지만 그것을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수호를 위해 공화국이 자위적책

제가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은데 있다고 떠들면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바쁘게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반입하고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들을 감행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날로 가중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북침책동,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되어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공화국이지만 그것을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수호를 위해 공화국이 자위적책

《제재결의》라는것들을 조작해나서고있는 여기에는 부당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세계여론앞에서 합리화하는것과 함께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제재와 압박을 국제화, 집단화하여 공화국을 기어코 고립압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 있지도 않은 공화국의 《인권문제》까지 거들며 유엔무대를 더럽히고있는것이다.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인권용호자》인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해마다 해당 나라들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리비아, 레바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 현장사무소를 내온적이 있지만 이 기구들은 모두 내전, 시위사태, 대량학살을 조사하기 위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내전상태도 아니고 대중시위나 대량학살과도 전혀 인연이 없는 공화국을 상대로 체제전복을 겨냥한 항구적인 《인권조사기구》를 내온것은 전례없는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계에서는 유엔이 서울에 《북인권사무소》를 내온것은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로골적으로 위반하고 정상국가의 체제전복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정의의 호호하고 평화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유엔은 결코 주권국가이며 평화애호적인 공화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도구가 아니다. 유엔헌장에 규정된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 존중, 영토불가침,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탄탄하게 짓밟아 못해 오히려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랑 70년간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칠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한 미국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온 미국

상정되는 경우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해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대표만을 회외에 끌어들이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유엔에서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과 강요하였다. 조선전쟁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매개 나라의 자주권존중, 영토불가침, 내정불간섭을 규제한 유엔헌장을 탄탄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

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에도 미국은 세계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들을 감행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날로 가중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북침책동, 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파괴되어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공화국이지만 그것을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수호를 위해 공화국이 자위적책

《제재결의》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작해내고 그것으로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었다. 핵무기전과방지구약에 의하면 핵무기소유국은 핵무기로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나라를 위협하지 않게 되어있다. 핵무기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의 비핵지위를 존중하여 핵위협을 포함한 일체 무력사용위협을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이며 요구이다. 그러나 미국은 보편화된 국제법적원칙을 마구 짓밟으며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의 참

제력을 갖추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정당하다. 그런데 미국은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를 시비하다 못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행사할수 있는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도 《미싸일위협》으로 몰아대며 문제시하면서 유엔에 상정시켜 놓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들을 여러차례나 조작해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우주공간에 위성을 수많은씩 쏘았어도 그 어느 나라도 그것으로 유엔의 《제재결의》를 받은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서 위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쏘을린 미국이 북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까지 《미싸일위협》으로 걸고들며 유엔

데 언제한번 공화국이 빠진적이 없다. 인권은 국권이자 자주권이다. 오늘날에 와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요란스레 떠들면서 그것을 국제화하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걸잡이로 리용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에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조사한다는 미명하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설치한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 시기 유엔이 인권문제

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리비아, 레바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 현장사무소를 내온적이 있지만 이 기구들은 모두 내전, 시위사태, 대량학살을 조사하기 위한 인권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내전상태도 아니고 대중시위나 대량학살과도 전혀 인연이 없는 공화국을 상대로 체제전복을 겨냥한 항구적인 《인권조사기구》를 내온것은 전례없는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계에서는 유엔이 서울에 《북인권사무소》를 내온것은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로골적으로 위반하고 정상국가의 체제전복을 기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정의의 호호하고 평화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유엔은 결코 주권국가이며 평화애호적인 공화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도구가 아니다. 유엔헌장에 규정된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 존중, 영토불가침,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탄탄하게 짓밟아 못해 오히려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랑 70년간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칠수 없는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한 미국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